
 논문

1852-1914년 프랑스 백화점의 노동 관리의 양면성*

- 봉마르세를 중심으로 -

최 향 란

- | | |
|--|---------------------------------|
| I. 들어가며 | III. 온정주의적 노동 관리의 ‘그림자’: 엄격한 통제 |
| II. 온정주의적 노동 관리의 ‘빛’: 이미
지 메이킹을 위한 복지 |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부르주아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일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시대적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부르주아 문화는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백화점(*grand magasin*)이다. 19세기 중반에 탄생한 백화점들은 부르주아의 소비생활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소비문화의 구도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부르주아 문화에 걸맞은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발시킴으로써 ‘근대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등장은 과거 남성에 의해 통제되었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사회적 구도를 바꿔놓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¹⁾ 본 논문이 시도하려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379).

1) D. Chaney, “The department store as a cultural form”, *Theory, Culture and Society*, 1(1983), pp. 22-28; Robert Proctor, “Constructing the retail monument: the Parisian department store and its property, 1855-1914”, *Urban History*, 33, 3(2006), p. 393.

호황을 누렸던 백화점에 대한 탐색은 대중소비를 통해서 유지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뿌리를 읽어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르주아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상의 단면들은 『사생활의 역사』²⁾ 4권과 5권의 내용 그리고 최근에 번역·발간된 『파리의 풍경』³⁾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헌들에서도 부르주아의 소비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극히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헌들은 소비문화의 명암을 잘 드러내지 못하며, 이에 대한 상당한 보완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21세기 들어와서 일부 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분석대상을 ‘생산’과 ‘노동’이 아닌 ‘소비’와 ‘레저’로 초점을 바꾸면서, 특히 유희적인 소비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⁴⁾ 한국 역사학계에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설혜심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학계의 도덕적, 정서적 분위기가 ‘소비’라는 주제에 대해 아직 경직된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⁵⁾ 하지만 서구 소비사는 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영감을 제시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소비사의 연구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안느 마르탱-뤼지에, 미셸 페로 편집, 『사생활의 역사 4』, 전수연 옮김(새물결, 2002),
- 3)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6』, 이영림 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부, 2014). 메르시에의 책을 통해 18세기 부르주아의 삶과 급격히 변화하는 파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4) 바네사 R. 슈바르츠, 『구경꾼의 탄생: 세기말 파리, 시각문화의 폭발』, 노명우·박성일 옮김(마티, 2006), 51쪽. 근대 자본주의 연구로 유명한 독일 경제학자 베르너 쾰프의 『사치와 자본주의』 또한 소비사의 시원을 이루는 중요한 업적이다. 1970년대가 되면서 문화연구, 인류학, 경제사회학 등의 분야에서는 소비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미 있는 행위로 보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소비란 기호가 소비되는 것이지 사물 자체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구별 짓기』에서 그동안 자본에 대한 논의가 경제적 자본만을 다뤘었다고 비판하고 ‘문화자본’을 강조한다. 문화자본이란 간접적이며 비가시적인 자본으로, 소비행위를 통해 사회적 차이를 재생산하는 자본이다. 설혜심, 『서구 소비사의 현황과 전망』, 『역사비평』 107호(2014), 284쪽; 최근 소비 팽창의 시원을 찾는 작업은 매크레켄의 16세기, 매킨드릭 등의 18세기, 캠벨의 18-19세기에서 벗어나 훨씬 이전이나 이후 시대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소비의 폭발을 르네상스나 중세 말까지 끌어올리는가 하면, 19세기 말과 20세기가말로 진정한 소비혁명의 시대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같은 논문, 288쪽 참조. 쥘디스 코핀의 경우 전환기 여성노동을 재정의하면서, 여성, 노동, 소비가 서로 긴밀한 방식으로 연결, 전개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 5) 같은 논문, 288쪽.

19세기에 백화점이나 체인점처럼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소비 공간은 소비에 따른 이용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각시켜 주었다.⁶⁾ 이런 소비문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일부 백화점들에 대한 연구로서 주로 개설적인 역사 전반을 소개하면서 재정적인 측면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다.⁷⁾ 하지만 이를 보다 확대하여 여러 백화점에 대한 연구로 진척시켜 백화점과 소비문화의 역사를 새롭게 거시적으로 조명해보는 것도 나름의 의의와 독창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백화점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백화점을 살펴봄으로써 백화점의 발달과 역할을 노동사와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한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프랑스의 백화점이 전쟁으로 인해 잠시 성장세를 멈추었다가 제2의 도약과 발전을 경험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다. 양차 대전과 대공황이라

6) 같은 논문, 289-290쪽.

7) 백화점의 역사에 대한 원론적인 대표 논문으로는 Louis Bergeron, "Les grands magasins" in Yves Lequin (dir.), *Histoire des Français aux XVIII^e siècle et XIX^e siècle*(A. Colin, 1983)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18세기와 19세기의 프랑스 역사를 다루면서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조한 백화점의 역사들을 통사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이를 더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저서와 연구서로는 Michael Miller, *The Bon Marché: Bourgeois Culture and the Department Store, 1869-1920*(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같은 저자의 *Au bon marché 1869-1920, Le consommateur approvoisé*(Armand Colin, 1987)를 들 수 있다. 이 저서들은 봉마르세의 기업문서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다양한 사료에 근거하여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봉마르세의 사회적 변화, 기업형성에 있어 가족의 역할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백화점의 역사현장과 노동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Theresa M. McBride의 논문 "The Long Road Home",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Boston: Bridenthal/Koonz, eds., 1977), pp. 280-295은 여성노동에 집중하여 백화점 여성노동자들의 꿈과 출신배경 그리고 고한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역사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리 새로운 것이 없는 일반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 필자의 「19세기 중엽 프랑스 백화점의 역사-봉 마르세(Bon marché)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16호(2007. 2)는 봉마르세 탄생의 역사적인 전개과정, 봉마르세의 재정과 홍보전략에 집중하여 연구하였지만, 주로 백화점의 탄생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며,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 일반적인 문헌으로는 김인호의 『백화점의 문화사, 근대의 탄생과 욕망의 시공간』(살림, 2006)과 가시마 시게루의 『백화점의 탄생』(뿌리와 이파리, 2006)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두 서적은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백화점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개설서라 할 수 있다.

는 엄청난 대사건으로 인한 소비문화의 위축과 또 이를 넘어서는 제2의 도약(주로 해외진출 모색) 상황을 연구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 이에 본 연구는 백화점이 탄생하는 설립 초기부터 1차 세계대전 시기까지만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4개의 주요 백화점(봉마르세 1852년, 루브르백화점 1855년, 프랭탕 1865년, 갤러리 라파예트 1895년 창립)⁸⁾을 살펴 보았다. 파리에는 12개의 대표적 백화점이 있지만, 봉마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백화점은 사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나마 보관되어 있는 사료들은 대부분 광고 전단지이거나 신문에 나타난 건축 상황이나 마케팅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노동자들의 복지실태를 보여주는 사료는 아쉽게도 극히 드물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봉마르세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봉마르세를 역할모델로 하여 타 백화점들도 이와 어느 정도 비슷한 복지환경을 채택하였기에, 여러 파편들을 종합하여 타 백화점들의 복지정책의 단면들도 더불어 유추해보았다.

프랑스 상업 발달의 역사에서 두 번째 흐름으로 등장하는 이 백화점들은 당시 소비문화를 이끈 선두 주자다. 이들은 1840년대와 1860년대 사이에 신유행품점(magasin de nouveauté)에서 배운 기술들을 발전시켰고, 혁신적인

8) 19세기와 20세기에 소비문화를 주도한 백화점들은 상층 중간계급을 겨냥한 판매 전략을 세우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자로서 자부했다. 즉 백화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일은 부르주아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위라는 문구들을 유포함으로써 쇼핑문화를 주도했다. 봉마르세의 취급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부추겼는데, 이런 수요와 욕망을 창출하는 데 이용한 것이 광고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836년 7월 1일 에밀 드 지라댕(Émile de Girardin)이 광고와 신문을 결합해 일간지 프레스를 창간하면서 급격히 상업광고가 시작되고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장 카르티에 발매상이 창간한 『피가로』(*Figaro*)를 들 수 있다. 가시마 시게루, 『백화점의 탄생』, 132쪽 참조; 비정치적 신문으로, 일상적 삶을 소재로 삼은 『프티 주르날』(*Petit Journal*)은 1863년에 등장한 것으로 커다란 포스터로 선전하고 대량의 광고를 모았으며, 신문팔이 소년을 이용, 가두판매를 시작하여 1870년에는 100만의 독자를 확보했다. 1876년에는 대중을 겨냥한 『프티 파리지앵』(*Petit Parisien*)이 등장하여 『프티 주르날』의 경쟁자가 되었다. 1800년대에 파리의 신문은 약 120종이었는데, 1890년에는 약 110종, 1900년에는 240종으로 증가했다. 지면을 넓게 사용하여 전면광고를 감행한 것은 1867년 1월 26일 『디아블르아카트르』(*Diable à quatre*)에 루브르백화점이 가정용품의 분류광고를 낸 것이 가장 빠른 사례로 추정된다. 이 신문의 1867년 3월 18일자에 실린 봉마르세 백화점의 전면광고는 양복광고로는 세계 최초로 추정된다. 하루야마 유키오, 『서양광고 문화사』, 강승구·김관규·신용삼 옮김(한나래, 2007), 329-330쪽, 462-465쪽 참조.

판매방식을 통해 소매문화를 변화시켰다. 프랭탕의 전형적인 광고를 살펴보면 초기부터 그들은 상당히 대규모 건물확장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끊임없는 사업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⁹⁾ 이에 따라 백화점들은 ‘규모 확대’라는 외형적 확장을 수행한다. 일례로 1879년 루브르백화점은 장소 확장이 필요하기 전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등 사업규모에 있어 무한한 팽창을 시도하였다.¹⁰⁾ 이는 경영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큰 건물을 통해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하는 물리적 팽창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이들 사업방식의 특징은 단지 전통적인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티 부르주아 출신의 고객들을 확보한 것이다. 이런 백화점에서 노동업무를 담당한 것은 젊은 남성과 여성 직원들이다. 백화점들은 이들의 노동을 통제, 관리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이들이 시행한 방식은 대체로 온정주의적(paternalism) 복지정책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노동자 통제방법의 일환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면도 다분히 많다. 백화점들은 자체적으로 상호공제조합들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복지정책의 단초를 열었다. 봉마르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선기관(Institutions philanthropiques)’이라는 명목으로 1876년 재해에 대비하는 공제조합(Caisse de prévoyance)이 설립되었다, 1886년에 마담 부시코에 의해 은퇴금고(Caisse de retraite)와 1892년에는 남녀 직원들의 구호금고(Caisse de secours)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당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실시된 복지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II. 온정주의적 노동 관리의 ‘빛’: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복지

19세기의 파리는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최초의 백화점, 대로의 오스만화와 더불어 세계박람회로 대표되는 시대적 분위기가 팽배했다. 7월 왕정부터 영국을 모방한 상층 부르주아 계급 사이에서 바캉스가 보급되었으며, 제2제정기, 제3공화정 시기는 파리 산업화의 절정기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오스

9) Advertising leaflet for Printemps, Archives de Paris, 9AZ/11.

10) Robert Proctor, “Constructing the retail monument...”, p. 399.

11) G. Clerc, “Les nouvelles galeries des Grands magasins du Louvre”, *Le monde illustré*, 4(Oct. 1879), pp. 225-228.

만화로 인해 옛 파리는 파괴되고, 근대적 문화 양식이 탄생하면서, 스펙터클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체들, 특히 백화점이 성장하였다. 즉 벤야민이 말한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¹²⁾, 당시 백화점은 다양한 상품을 한데 모아 고객을 유인하였다. 이들은 상업이란 ‘상품에 의한 소비자 교육’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파악한 자들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소비자에게 ‘더욱 풍요로운 삶’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주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교육시키는 데 집중하였다. 에밀 졸라(E. Zola)가 백화점이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정도로 백화점 소매업 혁명에 의한 소비의 열정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¹³⁾

백화점들은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결합시키는 혹은 자신의 이익으로 도출할 줄 아는 피고용자 집단을 창출하기 위해 고용과 승진,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정립했다. 여성은 이러한 시스템의 결정적 대상이었다. 여성은 이 새로운 시장에서 사무직 사원이자 동시에 고객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새로운 매장의 중심 상품이 패션과 건조식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역할이 19세기 말에 확장되고 변화되어 직장에서의 일들은 가정 역할의 확장으로 간주되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했다. 일례로 졸라의 유명한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Au bonheur des dames*)이라는 소설의 젊은 여자 주인공은 봉마르세와 루브르백화점을 본떠 만든 대형 백화점에 완전한 고용을 보장받았다. 당시 여성들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될 것이라는 희망에서 저임금과 매우 불안정한 임시노동직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들은 계층제적 조직으로 매장관리인이 되면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품고 있었다. 실제 1914년까지 여성이 백화점 노동력의 대다수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백화점들은 차츰 ‘여성의 세계’로 상징화되었다. 공식적인 프랑스 통계에 따르면, 1896년 성인 여성이 임금노동자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1906년에는 37%로 증가하여 7,694,000명에 달했다. 1911년경 산업체는 남성이 대략 355만 명인데 반해 여성은 219만 명을 고용했다.¹⁴⁾ 백화점 부문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880년대 봉마르세는 2,500명의 직원을, 루브르는 1900년대에 3,500명에서 4,000명에 이르는 직

12)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I, II』, 조형준 옮김(새물결, 2005), 204쪽.

13) Theresa McBride, “The Long Road Home”, p. 286.

14) Madeleine Guilbert, *Les Femmes et l'organisation syndicale avant 1914*(Paris, 1966), p. 14의 <그림-1> 참조.

원들을 시즌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1880년에 파리의 12개 대표적 백화점은 평균적으로 1,708명의 직원을 보유했다.¹⁵⁾ 이렇게 볼 때 백화점의 사업 확장과 엄청난 피고용자의 수는 사회구조적으로 소비문화의 역사를 창출하는 주도적 계기를 마련했고, 부르주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욕망 실현의 계기로 작용했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많은 배려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은 한다. 가장 두드러진 봉마르세의 예를 통해 실제적인 측면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에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제도는 1945년에 이르러서야 법제화되었다. 그 이전 19세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구호정책이 부재했으며, 이 시기에 사회보호의 핵심적 주체 역할을 한 것은 교회, 기업 그리고 상호공제조합이다. 일부 기업가들은 주로 온정주의에 기반을 두고 개별 기업에 퇴직연금 제도를 설치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꾀하도록 유도하였다.¹⁶⁾ 특히 1870년과 1880년 사이 제2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기업가들은 상호공제조합 설립을 노동자들을 통제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백화점들의 복지후생 제도와 사회보장적인 제도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사례다.

15) Émile Levasseur, *Histoire du commerce de la France. de 1789 à nos jours, 2^{ème} partie*(Arthur Rousseau, 1912), p. 453; Alexandre Weill, *Un fléau national. Les grands magasins de Paris et les moyens de les combattre*(Paris: Paul Sévin, 1891), pp. 15-18. 1895년의 한 사료에서는 백화점을 가정·공중도덕·주민·중소 부동산·프랑스 전역 소상공인·소매업과 도매업자들의 주 파괴범, 그리고 제조업자와 그들이 고용한 직원과 국가산업의 파괴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들의 문제는 독점으로 인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총매출이 1/3에서 1/5로 줄었음을 불만으로 제기했다. 대규모 백화점의 출현으로 파산을 걱정하는 당시 소상공인들은 저항 수단에 대해 숙고하고 청원서를 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1901년 '상공업단체총연맹(Confédération des groupes commerciaux et industriels)'을 설립했고, 1910년에는 200개의 협회를 구성하여 7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그들은 중소기업들의 이권을 대표하며, 구체적인 활동을 조직했다. 1906년에는 '파리센도소매상연맹(la Fédération des commerçants détaillants de Paris et du département de la Seine)'을, 1908년에는 '국립상업사무소(Office national du commerce)'를 열고 파리 너머 지방으로까지 활동을 확대해 나갔다. 1908년에는 '프랑스중간계급수호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la défense des classes moyennes)'가 창립되어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지원해주었다.

16) 함세남 편, 『사회복지역사와 철학』(학지사, 2007), 304쪽.

백화점이 실시한 구호금고는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금고를 설치, 피고용자들의 산업재해, 질병, 혹은 퇴직시 약간의 배당금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금고 운영의 목적은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¹⁷⁾ 봉마르세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금고의 가입자 수는 1876년 128명이었으나 1893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1,965명에 달했으며, 금고 기금은 2백만 프랑에 가까웠다.¹⁸⁾ 이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1876년 봉마르세의 최고경영자는 공제 방식이 아닌 기업의 순익에서 기금을 각출하는 퇴직금 제도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이 제도가 시작되었을 당시 유자격자 128명에 기금은 62,020프랑에 지나지 않았으나, 1903년에는 유자격자가 2,796명에 이르고 기금은 390만 2,548프랑에 달해 있었다. 이 숫자는 직원들의 가입이 정착되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줌과 동시에 백화점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해져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시코의 사후에는 그의 부인이 1886년 봉마르세를 합자회사로 바꾸어 주식을 무상 혹은 유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사원지주제의 등장으로 봉마르세의 사원들은 사주가 되었다. 이 제도에 더해서 1892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양로연금 제도, 퇴직금 제도가 시작되었다. 수급 자격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해당되었고, 기금은 매년 봉마르세의 순익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어 충당했다. 1903년에는 이 기금이 대략 62만 프랑에 이르렀다. 또한 부시코 부인의 유언에 따라 봉마르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옛 사원과 현 사원에게 총 1,600만 프랑을 유증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1천-1만 프랑의 유산을 나누어주었다.¹⁹⁾

한편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피고용자들에게 판매 한 건당 1-2퍼센트의 수당을 주는 정책을 채택했다. 실제 가족수당제도의 도입과 발전적 측면에서 고용주 집단은 19세기 중·후반부터 피고용자들에게 프랑스 고용주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인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수당(bénéfice)을 지급했었다. 봉

17) 같은 책, 305쪽.

18) Au Bon Marché. *Résumé du règlement général; Institutions philanthropiques en faveur du personnel*(1894).

19) 그 나머지는 파리시(市) 민생위원회에 기부하여 양로원과 병원, 그리고 미혼모를 위한 치료 및 보호시설을 짓는 데 쓰도록 했다. 그 예가 파리 15구의 공방시용(Convention)가에 800만 프랑의 자본으로 설립된 부시코 병원이다. Au Bon Marché, *Résumé du règlement général...*

마르세의 경우 장기 피고용자들은 부시코 가족에 의해 시작된 복지기금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처음 5년 근무 후에 매장은 각각의 피고용자들을 위해 일련의 기금을 납입했다. 1886년 이후 15년 근무한 여성들은 45세 이후 이 수당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수당은 개인의 봉급과 근무 기간에 따라 1년에 600-1,500프랑이었다. 1910년경 봉마르세 직원의 3/4은 이 수당의 혜택을 받았다.²⁰⁾ 또한 수당은 피고용자의 가족들에게 사망 기금으로 제공되고, 여성 사무원들은 결혼하여 매장을 떠나게 될 경우 이 기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루브르에서는 각 매장이 비슷한 수당기금으로 1년당 200프랑 정도를 분담했다. 당시 활발히 시행되었던 총수의 수당 제도로 1년에 5백 프랑을 초과할 수는 없었지만 백화점의 직원들은 매년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²¹⁾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 백화점 고용주들은 박애정신으로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피고용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수단은 전통적인 온정주의와 근대적 상품개발 방식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용인의 생산성을 위해 고용주들은 유급 병가, 건강 돌봄 그리고 연 휴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대부분의 매장은 1년에 며칠의 병가를 보장하였고, 봉마르세의 피고용자들은 부시코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백화점들은 건물 안에 전속 의사를 배치하였다. 공기가 나쁜 실내에 틀어박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백화점 사원들은 결핵에 걸리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최고경영자는 의학계의 권고에 따라 실내에 의무실을 설치하여 사원들의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여기에는 물론 봉마르세의 사원들 중에 결핵환자는 없다는 '선전효과'의 득도 있지만, 건강한 사원이 건전한 노동을 한다는 이상적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계산이 작용했다고 보인다.²²⁾

루브르백화점은 피고용자들의 저축 플랜을 후원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가용 주택에도 투자하여²³⁾ 해마다 그들이 보유한 지방의 휴식공간에서

20) A. Lainé, *La Situation des femmes employées dans les magasins de ventes à Paris*(Paris, 1911), pp. 56-58, 65.

21) Pierre Giffard, *Paris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 Les grands bazars*, 2^{ème} édition(1882), p. 73.

22) 가시마 시게루, 『백화점의 탄생』, 124쪽.

23) Theresa McBride, "A Woman's World: Department Stores and the Evolution of Women's Employment, 1870-1920",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0, No. 4(1978), p. 675.

피고용자들을 위한 치료 돌봄을 베풀었다. 며칠에서 2주 정도에 이르는 유급 휴가는 1900년대 초에 백화점 피고용자들에게는 흔한 것이 되었다.²⁴⁾ 그러나 초기 병가인 경우 급여를 지불했으나 이에 대한 남용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병가인 경우는 월급을 제하였다.²⁵⁾ 이와 더불어 여성 고용인은 모유수유를 위한 유급 휴가를 얻었다. 6주에 달하는 휴가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아이들이 출생할 경우 200프랑에 해당하는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대가족 제도를 증진시켰다.²⁶⁾ 실상, 대규모 상업 활동에 있어서 백화점이 고용인과 피고용자 사이의 가족주의적 관계를 파괴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보면, 고용주들은 피고용자 가족 생활의 질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백화점이 대규모 도매업에 일반적으로 적대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가족경영을 하는 상점들보다 피고용자를 더 잘 대우해주었다고 결론지은 1914년 의회 위원회 보고서도 발견할 수 있다.²⁷⁾

이외의 복지시설로는 기숙사 주거시설 구비와 무료 사원식당 설치를 들 수 있다.²⁸⁾ 이와 더불어 백화점은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바캉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바캉스는 19세기 후반 일상의 활동과 생활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도시와 산업사회의 생활에 균형을 맞추어준다고 여겨졌고²⁹⁾ 바캉스의 활성화는 소비문화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1912년 7월 6일자 『주간잡지』는 ‘바캉스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50년 전에는 바캉스를 가는 것이 독특했으나, 오늘날에는 안 가는 것이 유별나 보일 정도”라고 했다.³⁰⁾ 피고용자들의 바캉스 요구를 받아들여 백화점들은 장기 근속자

24) *Ibid.*, p. 677.

25) Pierre Giffard, *Paris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 pp. 75-76.

26) Michael Miller, “The Department Store and Social Change in Modern France: The Case of the Bon Marché, 1869-1920”(University of Pennsylvania, Ph.D. dissertation, 1976), p. 88.

27) N. Pierson, *La question des grands magasins devant les chambres*, Ligue syndicale pour la défense des intérêts du travail, de l’industrie et du commerce (Nancy, 1892), p. 35.

28) 식당에서 800명분의 비프스테이크와 800킬로그램의 감자를 한꺼번에 요리하였으며, 이 조리장은 백화점의 견학코스에도 포함될 정도였다. 이는 물론 사원식당이 있으면 점원들의 근무교대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는 목적이 숨겨져 있다.

29) 안느 마르탱-뤼지에, 미셸 페로 편집, 『사생활의 역사 4』, 343쪽.

30) 같은 책, 345쪽.

에게 보너스를 주었고, 당시의 루브르백화점에서는 1년당 200프랑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챙겨 주었다.

한편 백화점의 온정주의적 동기와 광고 효과에 대한 기대가 결합되어 사내에 합창단이 조직되었는데, 예컨대 봉마르세는 선구적으로 1873년 ‘합창대와 조화(le Chorale et l’harmonie)’라는 이름의 직원 합창단을 조직하였다. 이 합창단은 직원들과 초대받은 주 고객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공연을 열었고 공연은 흔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또 고용주들은 저녁 시간에 제공되는 자유 어학수업과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³¹⁾ 봉마르세를 본 따 여러 백화점에서는 직원을 위한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희망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강좌는 폐점 후에 외부에서 초빙한 강사의 지도 아래 시행되었는데 영어강좌 성적우수자에게는 ‘반년 동안의 유학’이라는 특전이 주어졌다.³²⁾ 이처럼 백화점에서 시행한 몇몇 사내 복지정책을 통해, 직원의 계급의식을 상층 중간계급 쪽으로 끌어올려 줌으로써 피고용자들은 여타 노동자들과는 다른 차별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여성은 판매 담당자로서 그리고 동조적인 소비자로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발견하게 되었다.

III. 온정주의적 노동 관리의 ‘그림자’: 엄격한 통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정책은 노동자들에게 항상 득으로 작용했을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는 또한 노동자 통제의 수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³³⁾ 백화점 광고주들과 지지자들은 백화점과 직원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다. 1890년대 봉마르세의 복지정책취지서에 따르면 백화점은 아주 점진적인 비즈니스 온정주의 정책의 선구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모든 직원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을 들 수 있다. 봉마르세의 1889년 팸플릿에는

31) Theresa McBride, “The Long Road Home”, p. 284.

32) 가시마 시게루, 『백화점의 탄생』, 121-122쪽.

33) 부어스틴은 소비가 사회적 연대를 회색시킨다며, “이제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것에 의해 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소비하는 것에 의해 연대한다”고 한탄했다. 이제 대량생산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품과 균질화된 문화가 인간의 존재를 무기력한 양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을 가한다. 그 가운데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소비자 비평에 관한 한 가장 엄세적인 견해를 피력한 학자이다. 설혜심, 『서구 소비사의 현황과 전망』, 293쪽.

“모든 벌들이 생산된 꿀을 즐기고 있다. 그들의 열성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현재의 안전을 누리고 미래엔 부자가 되리라는 희망을 갖는다”³⁴⁾라는 벌꿀의 은유를 직원과 기업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백화점들은 사업장을 하나의 가정으로 간주하고 직원은 단순히 근로계약에 기초한 피고용자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간주했을까? 그리고 고용주를 가족 부양 책임자로서 여기는 온정주의적 관념이 전통적으로 강했기에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교묘한 위장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몇몇 사례에서 발견해보자.

먼저 봉마르세의 사례를 보면 신관 건설에 착수하기 훨씬 이전에 사내 저축을 사원에게 권장하였다. 기업에 돈을 맡기면 당시의 예금금리 5퍼센트에 1퍼센트를 더한 6퍼센트의 이율로 이자를 지불하였다. 봉마르세의 이런 정책은 점포확대 정책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기도 했다. 1886년을 예로 들면, 927명의 사원이 총 320만 프랑을 봉마르세 사내 계좌로 예금하고 있었다. 그 해의 총매출액 1억 2,320만 프랑, 예상 순익 1천만 프랑과 비교해보면 그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봉마르세는 은행대출로 상품을 구입한 루브르백화점과 달리 온전히 이 사내예금을 활용하였다.³⁵⁾ 이는 피상적으로 본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실상 이전의 봉마르세의 논문에서는 이를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한 면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좀 더 상세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금 모집이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기금을 이용하여 회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묘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다분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무료급식과 기숙사 거주의 이면이 노동자 통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파리 백화점의 직원은 일정 기간의 훈련을 마친 이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 1911년 샘플로 보자면 여성 판매직 사원의 42퍼센트가 17-21세이며, 25퍼센트가 23-28세다. 이들 대부분은 미혼이고, 그 중 절반은 기숙사에서 숙식했다. 봉마르세는 작은 방을 갖고 있었고 루브르도 근처에 있는 건물에 사원을 숙식시켰다. 천정이 낮은 작은 방으로, 피고용자 자신의

34) A. Cucheval-Clarigny, *Les Grands usines de Turgan. Les Grands Magasins du Bon Marché*(1889), 43-44, BHVP: Actualité, 120 Bon Marché; *Marianne in the market*, p. 229 재인용.

35) 최향란, 「19세기 중엽 프랑스 백화점의 역사-봉 마르세(Bon marché)를 중심으로」, 60-61쪽.

힘으로 구하고자 하는 작은 월세 방보다도 오히려 나은 형편이었다. 비록 간단히 침대와 탁자 그리고 의자만 갖추고 있었지만, 접대실을 마련하여 여성을 위해 피아노를, 남성을 위해서는 당구대를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이성의 방문객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고, 심지어 여성 기숙사에 남자 직원이 방문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경비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의 허가가 있어야 외출이 가능했으며, 밤 11시 통행금지가 실시되었다.³⁶⁾ 심지어 판매직 사원들의 음주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파괴시켰다. 이러한 통제는 온정주의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면서 직원들의 개인 시간과 사생활을 통제했다. 실상 영어와 펜싱 수업을 진행한 것도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르주아를 상대하는 직업인만큼 그에 걸맞은 차림새와 교양을 요구한 것이다. 피아노를 설치한 것도 귀족을 모방하고자 하는 부르주아 고유의 특성일 뿐이지, 노동자를 위한 복지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본다. 게다가 야간 강좌가 행해졌지만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 직원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피곤한 강좌이고, 이에 특별 야간 수업에 참여하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또한 이는 노조 설립을 막고자 한 의도도 다분히 보인다. 또한 사무규정이 엄격해서 5분 지각에 25상팀을 내는 벌금 제도들이 있었고, 이 역시 여유 없는 직원들의 생활에 장애로서 작용하였다. 따라서 위의 정책들 대부분은 비(非) 복지 부분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매장 근처 그리고 기숙사에서, 심지어 식사하는 동안에도 백화점 직원들은 일에 갇혀 지냈다. 점심시간도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지는 못했다. 백화점의 고위 관리자나 감독관들이 각각 거대한 식탁 홀 안쪽에 앉고, 일반 남성 직원들이 긴 테이블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간간히 신문을 넘기거나 ‘호흡’ 하는 낮은 목소리뿐, 긴 침묵과 함께 직원들은 1시간 안에 식사를 끝내도록 요구받았다. 또한 여성 사무직 사원들은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점심시간과 휴식 역시 긴밀히 감독 받고 있었다. 각각 직원들이 매장을 떠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미처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직원들은 제공된 음식만 먹도록 강요되었고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은 전혀 없었다. 또한 여러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매장을 떠나거나 혹은 휴식시간에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갤러리 라파

36) Theresa McBride, “A Woman’s World...”, p. 671.

에트에서는 직원들이 식사하는 동안 식당 문을 잠갔다. 이런 종류의 통제방식은 관리정책이 결합된 온정주의적 방식보다 더 엄격한 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일요일 휴무 요구’ 시위는 당시 여직원들이 조직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일부는 남성 조합과 연대하여 고용주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저녁식사를 하는 식당에서 문을 잠그는 관행과 같이 여성들이 특별히 반대했던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³⁷⁾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 및 권리 향상을 위해 타 분야 노동자 및 사회주의자들과 연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연결성은 대부분 차단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더 고찰해보아야 할 문제점이다.

당시 고용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해고정책이었다. 해고의 위협이 양순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피고용자에게는 아주 뛰어난 도구였으며, 고용주들은 이것을 빈번하게 휘둘렀다. 예를 들면 봉마르세에서는 새로운 직원이 재빨리 채워져 1873년에 4백 명의 직원들이 새로 고용이 되었으며, 첫 5년 이내에 37퍼센트가 해고되었다.³⁸⁾ 대부분의 해고는 경고나 보상 없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피고용자에게 해고에 관한 선(先) 경고를 제공할 의무도 없어서 직원들은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³⁹⁾ 복지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 5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에 이는 복지라기보다는 외부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 기능으로 유지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당의 지불은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직원 관리 수단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성과급 지급을 통해 소비를 조장,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암묵적인 계산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노동통제라는 방식이 교묘히 온정주의적 복지정책 이면에 내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7) *L'Humanité*, 12, 22 et 27 octobre 1907; Archives de la Préfecture de Police, BA 153, “Employés de commerce, chambre syndicales, 1885-1904”; “Les Employés de magasins”, *La Petite République*(3 avril 1900).

38) Michael Miller, “The Department Store and Social Change in Modern France”, p. 156.

39) Theresa McBride, “The Long Road Home”, p. 289.

40) 함세남 편,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332쪽; Lisa Tiersten, *Marianne in the market. Envisioning Consumer Society in Fin-de-Siècle France*(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p. 33.

한편 당시 백화점의 노동시간은 상당히 길었으며, 1900년경 대부분의 여성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1892년 법에 따라 하루 10시간 노동이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백화점 직원들은 ‘선데이 클로징(Sunday closing)’을 위한 캠페인들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들은 항상 해고의 위협에 놓여야 했다. 1791년 르샤플리에 법으로 직업적 결속 및 연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들은 임금인상 요구, 노동시간 단축요구 등의 근로자의 권익보호 운동과 때로는 파업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당시 여성 직원이 초기의 낮은 임금, 장시간의 근무 그리고 영업 판매 감독원의 심각한 통제와 감시를 참아낸다면, 그녀는 봉급을 비교적 잘 받는 여성 판매직 사원의 반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다.⁴¹⁾ 남성들이 백화점의 임원과 부서장의 대다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여성들은 강도 높은 경쟁에 승리하곤 했다.⁴²⁾

보통 백화점 판매에서는 남성들이 의복, 가정 설비 그리고 여성 장갑과 스타킹을, 여성들은 패션에 맞춘 여성 드레스를 취급하였다. 그러나 백화점에는 이런 판매직 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직 사원으로서 주문, 광고와 우편 주문 사업을 담당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게다가 상당수의 재봉사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기숙사 숙박이나 의료보호 그리고 백화점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의 작업은 20세기까지 고한노동으로 남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백화점 내의 직원들간의 위계서열 그리고 차별적 복지혜택으로 인해 그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1869년 사무직 사원의 대규모 파업 이후 백화점에서 여성 비율이 증가되었고 여성이 남성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온순한 사무직 사원’이라는 개념과 ‘저임금’이라는 원리가 작용했다. 다시 말해 고용주들은 순한 노동력을 대표하는 여성을 고용했으며, 더 온순하고 전통적으로 채용인원 숫자가 부족한 여성 사무직 사원들이 남성 사무직 사원을 대체해 나가게 됨으로써 백화점은 점차 파업으로 인한 경영차질을 덜 겪게 되었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을 더 적게 받고, 고용의 선택폭도 좁았기에, 고용주 입장에서 이들을 이용하기가 보다 수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요 업무와 육체적 일용직의 업무를 담당한 남성 직원들은 여성보다는 더 나은 노동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고된 노동을 피할 수 있는 풍족

41) Theresa McBride, "A Woman's World...", pp. 667-668.

42) *Ibid.*, p. 668.

한 조건은 아니었다.

한편 여성의 대중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들은 재봉사나 가정적인 단순 노동을 하는 데 주저하였다. 그들은 고용주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자질, 즉 공손함과 진지함 그리고 계산 능력 같은 자질들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해시키는 행동에 나섰다.⁴³⁾ 그렇다면 당시 백화점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다른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현실과 어떻게 달랐을까? 이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당시 여성들이 주로 하거나 공장의 하급 노동자로 종사했다면, 백화점의 여직원들은 당시 사무직 엘리트로 부르는 그런 직종이었음을 제시할 수 있겠다. 물론 상당히 고된 고한노동이었지만, 한편으로 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했던 공간에서 일하는 고급 직종이라 할 수 있다. 백화점 여성 사무직 사원들은 19세기 후반 여성 노동자들의 대다수인 하녀 출신들과 달랐다. 파리 백화점에 일하러 온 여성들은 프랑스의 도시나 읍 출신으로, 1911년 파리 근교에 살았던 여성 사무직 사원과 파리 상점에서 일한 그들의 반 이상은 파리 출신들이다. 줄라는 봉마르세의 여성 판매직 사원들 1/3이 순수한 파리지엔느이며 이들이 남성 사무직 사원들보다 더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⁴⁴⁾ 또한 라파예트의 경우, 천 명의 점원 중 850명이 프티 부르주아 출신이었다. 그들의 부모는 금리 생활자, 퇴직 군인, 하급 공무원 그리고 소상공인이었다.⁴⁵⁾ 즉 프랑스 여사무직 사원의 직업적 배경은 주로 도시 출신의 숙련 직업군을 형성했다. 몇몇은 중간계급 출신으로 부모가 교사 혹은 상인이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무직 사원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하는 노동계급 출신의 소녀가 아니었다.⁴⁶⁾

이에 사업경영의 성공이 주로 충성스런 피고용자 집단의 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백화점 고용주들은 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젊은 사무직 사원이 방이나 기숙사 이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여성 판매직 사원의 평균 봉급은 1900년경 한 달에 3백에서 4백 프랑 정도였다.⁴⁷⁾ 독신 여성조차도 그 정도 수준의 월급으로 파리에

43) *Ibid.*, pp. 668-669.

44) Michael Miller, "The Department Store and Social Change in Modern France...", p. 137; Theresa McBride, "The Long Road Home", p. 293.

45) Pierre Giffard, *Paris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 pp. 69-70.

46) *Ibid.*, p. 670.

47) Au Bon Marché, *Résumé du règlement général...*

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1860년경 세탁부 여성의 연봉은 685프랑, 재단사의 연봉은 340프랑이었다.⁴⁸⁾ 4인 가족의 연간 생계비는 1864-73년 기준으로 주거비 220프랑, 식료품비, 난방비와 기타 1,075프랑, 총 1,295프랑이 필요하다고⁴⁹⁾ 추산되었다. 1902년의 경우 산업체에 고용된 여성의 한 달 평균 임금이 60프랑이고, 가장 많은 산업체 봉급도 90프랑을 넘지 않았다.⁵⁰⁾

그러나 이렇게 나름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직원들은 파리의 다른 직종의 여성들처럼 놀랍게도 높은 사망률을 보여준다. 이들은 종종 결핵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 받았다. 높은 사망률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작업의 빠른 속도와 장시간의 노동이 노동자를 쉽사리 피곤하게 만들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저하시켰다는 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최초의 보호 입법은 주로 ‘피곤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입법은 모든 여성 직원을 위한 의자를 매장에 비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낮 동안에 사원들이 휴식하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다.⁵¹⁾ 이러한 매장 내 근무 외에도 매장 밖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했다.

무엇보다도 ‘가두판매’는 여성 직원들의 최악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데, 이는 소매고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피고용자에게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898년 『라프롱드』(*La Fronde*)지는 “우리 동료 중 한 명이 작년에 병으로 죽었는데, 사시사철 각종 날씨에 노출되는 거리에서 일을 함으로써 병을 얻게 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녀는 주로 외부에서 일했다”는 여성 판매직 사원들의 증언을 실었다.⁵²⁾ 휴식 없이 이어지는 장기간의 업무가 결핵과 빈혈증 그리고 다양한 신경 장애를 유발했다.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과 밀려드는 고객은 여성 직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했으며, 대부분의 판매직 사원들은 빈약한 식사습관으로 위장병을 겪었다. 당시 의사들은 여성에게 있어 업무의 치명적인 양태와 육체적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여성이 매장 내·외부에서 일하는 것이 결핵과 장기

48) G. Duveau, *La vie ouvrière en France sous le Second Empire*(Paris, 1946).

49) 데이비드 하비 지음,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김병화 옮김(생각의 나무, 2003), 258쪽.

50) Émile Levasseur, *Histoire du commerce de la France*, p.463; Theresa McBride, “The Long Road Home”, p.295.

51) Louis Delpérier, *La Protection de la santé des travailleurs de commerce*(Paris, 1910), p. 48.

52) “Le Travail des femmes dans les magasins”, *La Fronde*(6 mars 1898).

적인 질병의 주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⁵³⁾

게다가 당시 여성 직원들은 화려한 공간 속에서 일하면서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세련된 고급품질의 상품을 소비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판매실적과 함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또한 당시 변심고객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화려한 물품에 혼을 빼앗긴 절도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심했다. 그들은 ‘잠재적인 도둑’이라는 인식과 함께 감독관들의 감시 압박을 이겨내며 노동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멋진 건물과 상품 아래에서 언젠가 자신도 멋진 팀장이나 관리인이 될 꿈만 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부자라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알아야 했다. 이에 실패할 경우 직원들은 초기에는 장갑이나 넥타이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까지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이런 유혹에 노출된 이들은 계산원으로서, 푸아시(Poissy) 출신의 한 직원은 2천-4천 프랑을 절도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기도 하였다.⁵⁴⁾ 당시 백화점의 절도범들 중에는 일부 백화점 직원이 있었고, 특이한 것은 부유층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따라서 굳이 훔쳐야 할 동기가 없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데 한 의사는 주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⁵⁵⁾ 결과적으로 화려함에 가려진 여성 고한노동의 애환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피곤함과 많은 질병에 노출된 면역력 저하, 추운 겨울 야외매장에서 일하면서 초래되는 사망보고들이 있다. 이런 의학적 보고서를 통해 당시 유행했던 결핵과 다른 장기적인 질병들뿐만 아니라 소비와 관련한 여성들의 정신적인 우울증 사이의 연결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원들에게 베풀었던 온정주의적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결국 생산성 증대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상호공제조합, 어학강좌 및 펜싱강좌의 설립 그리고 휴가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확실한 효과를 창출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 매출액의 증가와 노동통제의 강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봉마르세는 1893년 총 매출액이 1억 5천만 프랑으로 순이익이 8백만 프랑에 지나지 않았으나, 1910년에는 총매출액 2억 2,700만 프랑으로 신장되었다. 루브르의 경우는 1875년 4천만 프랑에서 1893

53) Theresa McBride, "The Long Road Home", pp. 293-294.

54) Pierre Giffard, *Paris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 pp. 76-80.

55) Paul Dubuisson, *Les voleuses de grands magasins*(A. Storck & Cie, 1902), p. 2.

년에 1억 2천만으로 순이익 8백만 프랑 이상을, 1910년경에는 총매출액 1억 5,200만으로 신장되었다. 프랭탕의 경우 ‘화재’라는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재건축, 성장하여 총매출액이 1895년에 5천만, 1910년 1억으로 성장하였다. 라파예트의 경우는 1889년에 설립, 1909-1910년에 순이익 4천 8백만 프랑을 상회했다.⁵⁶⁾ 즉 각 백화점의 경우 상당한 매출액 증가를 이룰 수 있었고, 노동자들 역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생산성의 증가라는 측면과 함께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고 운영지침을 따라야만 하는 노동자들을 상당히 압박한 결과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측면도 다분하다. 이러한 압박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관리, 특히 교육적 측면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 예로 몸을 청결하게 하는 습관의 형성, 단정한 옷차림과 행동에도 신경을 써서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했다. 이렇게 백화점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외형적 모습과 함께 그들의 의식구조를 변형시키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백화점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 일종의 숨 막히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 다시 말해, 의료치료와 바캉스 혜택, 병가 그리고 수당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자들의 삶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다.

IV. 나가며

결론적으로 백화점 1세대를 특징짓는 고용주들의 온정주의는 백화점 업무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지만, 그 내면에는 순종적인 피고용자를 양산하려는 의도가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백화점의 업무는 외관상 화려한 사무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면에 있던 노동통제는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을 숨 막히게 하는 기능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욕망실현의 기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파악하고 있던 고용주들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원복지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는 당근과 채찍의 관계 또는 동전의 양면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백화점이 진화함에 따라 대부분 여성들의 노동경험도 발전했다. 1차

56) Émile Levasseur, *Histoire du commerce de la France...*, p. 451.

세계대전은 그러한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1914년 이후 여성의 백화점 고용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여성의 수만큼 급여가 감소했고 전쟁 기간 동안 수당이 줄어들었다. 이는 단지 1919년 파업의 물결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회복되었을 뿐이다. 여성 사무직 사원들은 1917년에 주당 48시간 일했지만 일하는 여성 가운데 엘리트의 지위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다.⁵⁷⁾ 크로지에의 주장처럼 ‘사무직 사원의 여성화’로부터 ‘사무직 사원들의 비전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⁵⁸⁾
(전남대학교 사학과)

〈투고일자 2015. 7. 18 심사일자 2015. 8. 3 게재확정일자 2015. 8. 6〉

주제어 : 백화점(Department Store), 여성 판매직 사원(Saleswoman),
사원복지정책(Welfare Policy for Employees), 노동 통제(Work Control),
봉마르세(Bon Marché)

57) *Ibid.*

58) Michel Crozier, *The World of the Office Worker*, trans. by D. Landau(New York, 1973), p. 73.

<국문초록>**1852-1914년 프랑스 백화점의 노동 관리의 양면성**
- 봉마르세를 중심으로 -

최 향 란

본 논문은 한편으로는 근대성의 아이콘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性) 역할이 나뉘어진 공간이며, 과거 남성에게 의해 통제되고, 감독을 받았던 여성의 소비활동 공간으로서 특징지어지는 파리의 주요 백화점들의 내부를 살펴보았다. 백화점은 자체적으로 상호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복지정책의 단초를 여는데, 이런 백화점에서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젊은 남성과 여성 사원들이다. 새롭게 도입된 백화점의 노동 관리와 통제 방식은 한편으로는 온정주의적 복지정책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통제의 일환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백화점의 노동관리와 복지정책의 상호 연관성을 사회경제적 시각으로 검토한 작업이다.

〈Résumé〉**1852-1914, les aspects doubles du contrôle du travail aux grands magasins français: le cas du Bon Marché**

Hyang-Lan CHOI

Cet article a étudié l'intérieur des grands magasins principaux à Paris qui avaient été interprétés d'une part comme l'icône de la modernité et d'autre part, comme l'espace de distinction sexuelle, où la consommation avait été assimilée avec les activités féminines surveillées et contrôlées par les hommes. Le grand magasin soi-même a fondé et administré la Caisse de prévoyance, et pratiqué la politique sociale. Ce sont les jeunes employés masculins et féminins qui ont travaillé à ces places. Les nouvelles façons du management et du contrôle ont eu les aspects doubles - d'un côté, une vision positive qui pourrait être considérée comme le paternalisme, et d'autre côté, une vision négative comme le cadre de la gestion des ouvriers. Par conséquent, cet article a examiné dans la perspective sociale et économique, la corrélation avec le contrôle du travail et les politiques sociales autour de ces grands magasins.

〈Summary〉**1852-1914, The Double Sideness of Work Control in French Department Stores: The Case of Le Bon Marché**

Hyang-Lan CHOI

This article studied the interior of main department stores in Paris that were interpreted on one hand as an icon of modernity, and on the other hand as a space of gender distinction, where consumption was figured as a feminine activity overseen and controlled by men. Department store established and ran mutual benefit association in itself and created the welfare policy. It was the young workmen and workwomen that were in charge of business in this place. The new way of labor management and control has a double sidedness - on one hand, a positive viewpoint that can be regarded as a paternalistic welfare policy, and on the other hand, a negative one as a part of a labor force control. Thus, this article examined the correlation with the labor management and the welfare policies of such department stores, under the social and economic perspective.